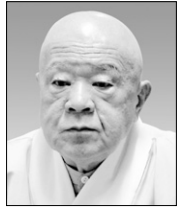


“서로 융화해 안락한 이상사회로”

대한불교원흥종 종정 일공 스님

원흥 융화한 경인년 인간 사회가 됩시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친선하며 서로 도와서 공존(共存), 공영(共榮)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입니다. 모든 공동생활체가 서로 융화하면 이 사회는 가장 평화롭고 밝고 안락한 이상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경인년 새해가 밝아 불타의 지혜의 빛과 자비의 향기가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하니 진중에서 연꽃이 피듯 간혹은 힘든 삶이지만 서로가 융화하고 단결하면 불타의 지혜의 빛을 볼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밝혀 깨우쳐 일구면 자신이 원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욕심 놓고 인정을 베풀라”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해안 스님

東天陽出 西邊雪(동천양출 서변설) 黃葉去春 好時節(황엽거춘 호시절) 喜悲本是 夢中事(희비본시 몽중사) 浮欲放下 施人情(부욕방하 시인정) 동쪽에서는 해 뜨고 서쪽에서 온 다 시든 낙엽도 지난 봄에는 화려했다네. 울고 웃는 것은 본래 꿈속의 일이라 밝아오는 새해에는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인정이나 베풀면서 우리 살아가세



“법을 깨달아 불국정토를”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 종정 봉해 스님

雖多誦經(수다송경) 비록 수많은 경전을 외 워도 不解何益(불해하익)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어찌 이로우리. 喜法臥安(희법와안) 불법으로 인해 기쁘면 누워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心悅意清(심열의정) 마음이 기꺼우면 그 뜻이 청정하구나. 從正解脫(종정해탈) 올바른 법을 좇아 해탈하여 寂然歸滅(적연귀멸) 고요함속에서 온 세상 본래의 참 뜻으로 돌 아가리라



“중생의 업식서 벗어나 주인공으로”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如日月光明 能除諸幽冥 斯人行世間 能滅眾生間 경인년 밝은 해가 높이 떴습니다. 사람마다 업 놀음에 빠져 쫓기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무정 설법으로 부처님의 태평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중생의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하고 잘못한일이 한치도 어 김없이 자기의 목이란길 하루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새해에는 중생들이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유정 무정이 함께 춤추는 이 성스러운 우주의 법연에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모두를 아우르는 새해 되길”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해공 스님

물길은 터지지 아니해도 스스로 흐르는 것 묻거나 무엇을 일러 가는 해라 하고 또한 새 해라 합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건만 세인이 스스로 분별하여 가는 해 오는 해라 합니다. 어제는 지났으니 내 것이 아니요. 내일은 오지 아니했으니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어진 농군은 낫의 율음을 듣고 새벽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개의 짚음을 듣고 도둑을 경계 합니다.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는 웬 말입니까? 율하는 모두가 모두를 아우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길은 터지지 아니해도 스스로 흐르는 것을.



“가정마다 육근청정, 복덕구족하길”

조계총삼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니 가사 한 벌이든 족하구나.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2010년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모두 육근청정(六根淸淨)하시고 복덕구족(福德具足)하시길 염원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는 G20국가의 화합과 발전으로 한국 중심의 국운이 융창하니 사해대중(四海大眾)이 부모형제를 만나 행복해지는 해입니다. 동년해가 천지를 비추니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비둘기 노래하고 물고기 춤추니 자유롭고 평화로워 천지에 기쁨이 넘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양보로 화합하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정관 스님

“서로를 격려하고 양보로 화합하자”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 아래와 위, 지위고 하 등은 아만과 편견,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경인년 새해는 동체대비를 새기며 이전만 불자가 앞장서 이끌어 갑시다.



“이해와 합의로 행복사회 이루길”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門門一切境(문문일체경) 回互不回互(회호불회호) 回而史相涉(회이사상섭) 不而依位住(불이위주) 육근의 일체경계는 이것과 저것이 섞기기도 하고 안 섞이기도 하니 이것과 저것이 번갈아 섞기면서 또 다시 새로운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 좋은 국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는 모두를 이해하고 합의해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맘흔리며 고행하신 부처 님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목탁 스님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고통이 많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의 사무람십승과 사십범에 의지하여 행을 보인다면, 이는 높고 낮음이 없고 있고 없음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고, 회로애락을 같이하는 공생의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필요로 하는 모두가 불교의 지도자요 포교사이니 안주보다는 맘 흔리는 고행을 보여주신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제자가 됩시다.



“해마다 달마다 매우 좋은 시간”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가산 스님

庚庚喃喃 十方春 寅寅日日法界輝 新新玄妙吉祥 年年月月欣好時 曹溪山門無一物 溪聲無盡長廣舌 제비 남남이 우는 소리 시방세계가 불이요 경인년 첫날의 해가 법계에 빛나고 새롭고 새로우며 그윽하고 그윽한 묘한 길상이 해마다 달마다 매우 좋은 시간입니다. 조계산문에는 한물건도 없으나 시냇물소리 다함없는 부처님의 말씀이니 중문에는 오직 하나 대각의 길 뿐이로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로 불법홍포”

해동불교인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입제중에 넘쳐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고요하게 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입제중에 넘쳐흐른다. 촛불을 밝히면 세상은 밝아진다. 이웃과 사회의 봉사가 지름길이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신년 경인년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경인년 새해 나무 아미타불.



“조화로운 세상위해 실천하자”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스님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어두운 일들은 모두 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힘차게 걸어갑시다. 갈등과 분쟁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고, 세상 모든 존재와 또 나 자신과 화합해 갑시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찾아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많은 여러 종도들이 종단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 바라며 사부대중을 위하여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늘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처삼고 몸을 법당 삼아”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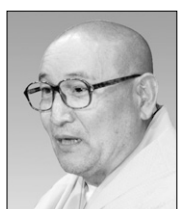
경인년 새해는 백수의 왕인 호랑이해를 맞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내실을 다져 각 개인마다 자성에 충실하여 인격을 완성합니다. 하심하여 스스로 자아를 돌아볼 때 인격은 완성되며 불자로서 깨달음의 세계에 바로 나가 대승의 참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엄과 관용을 지닌 불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부처삼고 몸을 법당삼아 열심히 정진하면 불교의 세계 포교화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자비 불국정토’를 이룩합니다. 성불합니다.



“부처님 진리에 의지해 정진을”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회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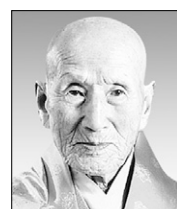
但依金口聖言(단의금구성언) 莫順流妄說(막순유망설) 常念柔和善順(상념유화선순) 不得我慢貢高(부득이만공고) 천년 만년 두고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리 말씀에 의지하고 범부중생의 부질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며 순하기 위해 힘쓰고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참회·자비의 마음으로 이웃 대해야”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기축년을 보내고 경인년 새해를 맞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헛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되살려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 하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으로 화합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 가족,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 인류의 안녕과 발전을 약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훌훌 털고 화해와 용서로써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긴히 마음머리 잡아”

대한불교위양종 종정 위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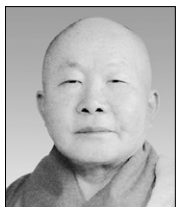
塵勞迥脫事非常 緊把繩頭做一場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百億乾坤安穩任運騰騰樂業般 생사의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니 긴히 마음머리를 잡아서 한바탕 힘을 지어다. 만약에 찬 것이 한번 골수에 사무치지 아니 할 것 같으면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에 가득함을 얻을 수 있으리요. 백억이나 되는 건곤의 장안 속에서 경인 등등해서 오만가지가 다 즐겁도다.



“말보다 정진으로”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다투고 떠드는 잡된 회론의 집착은 의당히 버리고 높은 정진 일으키라 모든 하늘 그리고 세간을 건지려면 이러한 높은 정진을 그대로 배우라. (해심경적 분별유가품) 새해 경인년에는 이같이 말보다 정진으로 수행하는 불교인이 되어 남 탓하는 풍조 만연한 세상에 대거리 하지 말고 수행 실천의 표본이 됩시다. 항상 바르게 입을 닦아 정진하면 어떠한 환란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니다.



“삼독 번뇌에서 벗어나길”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일체번뇌는 무명(어두운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재앙은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니 다 같이 삼독 번뇌에서 벗어나 맑고 밝은 마음으로 경인년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복되고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각자 마음의 태양을 발현시키길”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정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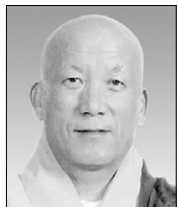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합니다. 살림살이란 서로가 살리면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최고·최대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과학의 세기임에도 실성(失性)한 이들이 부지기수인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본성이 태양처럼 밝은 빛임을 모른 탓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해의 밝은 빛처럼 우리 모두 다함께 각자 마음의 태양을 발현시켜서 광명세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인년 새해 아침에.



“여래의 묘법이 도량마다 나투네”

(사)한국불교미륵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승정 스님

一心淸淨不動地(일심청정부동지) 萬法歸一祖師禪(만법귀일조사선) 釋迦如來眞如法(석가어래진여법) 庚寅年道場化身(경인년도장화현신) 自他一時成佛道(자타일시성불도) 마음이 청정하고 동요함이 없음을 만법이 귀일하는 조사의 공안이고 여래의 참된 묘법이 경인년 도량에 화현하여 나투시니 너와 내가 다 함께 성불 하리라



“삼라만상이 모두 불법이라네”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청연 스님

허공에 하늘 빛같은 바른 빛깔이 아니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진정으로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네. 석양에 떨어지는 빛 또한 낙조가 아니라네. 초저녁 떠오르는 달 역시 떠오르는 달이 아니로세. 허깨비 같은 나에게 속았으니 진정 한심하지 않을 수가. 모든 것이 착각인데 어찌 알지 못 한다 말인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이 모두 망상인 것을. 본래 참 성품 찾으려 거든 허깨비에 속지 마소. 삼라만상이 모두 불법이라네. 진정 찾고 보면 이것이 견성인 길 알지 못하고 어렵다고만 하는구나.



“천만가지 어린 소리 국민의 향불이네”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數十年來不自由(수십년내부자유) 四方門口爭時咄(사방문구쟁시후) 我今立守歸中動(아금립수귀중동) 千響聲心琴佛國(천향성심금불국) 수십 년을 사는 동안 자유를 몰랐구나 동서남북 다니면서 말장난에 시간 가고 내 이제 일어나 중방세계 움직이니 천만가지 어린 소리는 국민의 향불이네.



“깨달음을 향한 용사가 되라”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오직 덕성(德性)과 지성(智性)을 겸비한 깨달음을 향한 용사가 되라 생명(生命)의 웅비(雄飛), 그 위대한 법계 평화를 위하여



“국태민안과 경제회복을 기원하며”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十方同一會(십방동일회) 各各學無爲(각각학무위) 此是選佛處(차시선불처) 心空及第歸(심공급귀)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각기 하업없이 진리를 배우나니 이곳이 부처를 뽑는 도량이며 마음 비우고 급제하여 돌아가네.

